

광주시 스마트 공장 50곳 구축

고도화단계 30곳 최대 5000만원 지원... 오늘 광주TP서 사업설명회 기초단계 삼성전자와 20곳 지원... 제조전문가 상주 노하우 전수도

광주시에 삼성전자 등과 협업해 올해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지원에 나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억원을 투입하고 고도화 30곳, 기초 20곳 등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형(스마트) 공장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장 유형이다.

광주시에 올해 고도화단계 30곳, 기초단계 20곳 등 총 50개 기업의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도화 단계는 중소기업부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별도 협약을

통해 구축비용의 일부(총사업비의 20% 이내,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한다.

기초단계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 공장을 지원한다. 기업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이며, 삼성전자 30%, 광주시 50%, 자부담 20%다.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전자와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현장 제조 전문가 3인이 지원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생산성·물류·환경 등 분야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금형·가공·자동화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협력기업과

지 패밀리혁신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삼성전자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지능형공장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고도화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365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에 지난해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킷오프' 행사 참석을 계기로 지역기업 내 삼성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목표로 협의해 왔으며,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형 기초단계 전국 80개사 중 20개사를 광주지역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에 15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삼성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모집은 이달 말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의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광주시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열린 '제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에 참석,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청년 아카데미서 허심탄회 토크

고민 공유·정책 아이디어 수렴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 참석해 수강생과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를 통해 그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는 올해 구성된 제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년의 고민과 건의 사항을 듣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지난 13일 열린 토크에서 청년들은 인구 유출, 일자리 확대, 주거정책, 문화예술가 지원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청년

시절 경험담 등 소탈한 이야기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전남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꿈·도전·네트워크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남도는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호남 청년 아카데미 워크숍은 제4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 외에도 재테크 및 절세 가이드 특강, 청년활동 공유회, 보성 유희술발해수육장 플로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조사

광주시, 5곳·82대 중점 점검

광주시에 "17~18일 지역 노후 공동주택 5곳의 승강기 82대를 대상으로 안전부품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수단 ▲상승 과속 방지 수단 ▲이탈방지 장치 ▲문열림 출발 방지수단 ▲자동구출 운전수단 ▲비상가이드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안전장

치 설치를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운행 중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정기적으로 승강기 실태조사와 안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안전·문화 체험해요"

12월까지 문화예술 기획 전시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관 3층 안뜰마루 쉼터에서 '안전체험관 기획 전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로부터 지역 미술 작가를 추천받아 3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분기별로 작품을 선보인다.

첫 전시는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오혜성 작

가의 작품 '별들 사이 헤엄'을 선보인다. 오작가는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과 그 안의 헤엄 이야기를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한 12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8월과 12월에도 지역작가를 초청해 1개월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는 체험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이번 기획 전시로 시민들이 체험관에서 안전과 문화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지난 12일 오후 서구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1기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봉사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나눔·연대정신 키우자' ...광주 청년들 뭉쳤다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 지역문제 해결·돌봄 앞장

광주청년들이 나눔·연대의 광주정신을 키우기 위해 뭉쳤다.

광주시에 지난 12일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지역 대학생과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제21기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청년층의 지역 자원봉사 문화 주도 등을 다짐했다.

빛고을청년봉사단에는 11명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로 244명이 참여하며, 환경문제, 사회적 소외 등 청년이 생각하는 지역사회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온기나눔팀'과 지역아동센터 초·중등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 등을 하는 '광주 돌봄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나이저리아 출신인 하루나 자원봉사자의 우수봉사사례 발표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하루나씨는 빛고을청년봉사단 리더로 2018년부터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 아동학습지도 봉사활동 및 사회·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 중이다. 하루나씨는 2023년

자원봉사 경연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광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광주'를 주제로 청년 정책 특강을 진행했으며,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년정책플랫폼', 해외 한달살기 프로그램인 '청년갭이어', 창업·일자리·주거 정책 등을 공유했다.

빛고을청년봉사단은 2007년 시작해 올해 18년째 운영 중이며, 농촌일손돕기와 무등산 생태환경 봉사활동, 지역축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만 267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